

▶ 백제세계유산센터, 경주박물관서
5월 7일까지 '세계유산 백제' 특별전

신라문화권에서 백제문화 알린다



(재)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7일부터 5월 7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세계유산 백제> 특별전을 연다.

이번 특별전은 영남권 국립박물관에서 백제역사 유물을 선보이는 자리로, 신라문화권 최초의 백제문화 전시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전시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위치한 익산·공주·부여의 도시 특성과 경관에 초점을 맞춰 백제왕도로서 면모를 소개한다.

불교 위상 가능할 수 있는
미륵사지 사리장엄 비롯
옷칠갑옷 등 800여점 전시

전시관에는 백제의 국교였던 불교의 위상을 가능케 볼 수 있는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을 비롯해 공산성에서 출토된 정관십구년(645)이라는 붉은 글자가 남아 있는 옷칠갑옷, 거대한 크기와 함께 백제인의 수려한 예술솜씨가 남아있는 왕흥사지 출토 대형 치미 등 총 800여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신라 왕경인 경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백제전시이니 만큼 신라 문물과의 비교적 관점으로 구성했다. 노하기 전북도 문화유산과장은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홍보하고, 지역만의 문화유산을 넘어 세계인의 유산으로서 백제문화가 공감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도 교육문화회관, 내달 그림책 원화전 개최

전북도교육문화회관(관장 최재춘)이 생태 세밀화가 이태수 작가의 그림책 작품 및 전시물을 만나는 2017년 그림책 원화전을 개최한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모습을 그려 온 이태수 작가는 '잘 가, 토끼야', '도롱뇽이 꼬물꼬물 제비나 비 휘휘', '가로수 밑에 꽃다지가 피었어', '늦어도 괜찮아 막내 황조롱이' 등의 그림책을 펴냈다.

이번 원화전은 내달 4일부터 5월 12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북교육문화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

작가의 대표적인 그림책 13권 123점의 그림책 원화작품이 전시된다.

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내달 21일 오후 7시부터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태 그림책을 주제로 작가 강연회 및 작가가 들려주는 원화 이야기가 운영된다.

또한 22일에는 1층 다목적실에서 초등 3-6학년 어린이가 있는 20가족을 대상으로 작가로부터 듣는 생태 이야기, 생태 세밀화 그리기, 손수건 만들기 체험 활동이 이뤄진다.

개별관람은 전시기간 중 누구나 가능하며 단체관람은 오는 24일까지 전자문서 또는 팩스(270-1649)로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20인 이상 단체 관람 시에는 빛 그림책 읽어 주기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정해은 기자

20일부터 한지메이드 색지공예 교육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는 한지관련 중급 이상의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한지메이드 색지공예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12주 과정으로 매주 월요일 3시간씩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한지문화 장인의 기술과 정수를 한지 관련 종사자들이 경험하고 배움으로써 전통한지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현대인의 실용문화로 자리매김해 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무형문화재 색지장인 김혜미자 선생이 강연자로 나서 한지 색지로 '전통 소반'을 제작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개강식은 오는 20일, 교육은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수료식은 6월 5일 각각 있을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한지 관련 공예경력 2년 또는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가진 사람, 한지공예 공모전 수상 경력자, 자격증 소지자 등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수강생은 15명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료는 15만원(재로비 별도)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3일까지 한지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hisc.re.kr)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이메일(hanjicenter@hisc.re.kr)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동문그림가게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이 '꿈틀꿈틀, 동문동행' 동문그림가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시민과 예술가를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

'꿈틀꿈틀, 동문동행'은 동문거리 일대의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동문예술을 향상화한 꿈틀꿈틀과 시민 및 예술가와 함께 동행 하는 동문동행이라는 2가지 주제로 총 8개의 세부사업이 진행된다.

이중 첫 번째로 진행되는 동문그림가게는 시민·예술가가 함께 전시를 하고 작품도 판매하는 프로젝트로, 4~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열리게 된다.

동문그림가게는 활동분야 및 장르제한 없이 만20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jcf.or.kr)에서 간단한 작품참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시민과 예술가에게는 전시공간, 판매홍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사계절의 미감 '삶과 그리움'으로

이석중 개인전, 오늘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

이석중의 개인전이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8~13일 열린다.

이 작가는 운율을 머금은 사계절의 미감을 '삶,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표출한다.

백로를 소재한 한 작품을 전작에서 선보였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꽃의 아름다움도 함께 표현하여 유희적이고 풍경을 자아낸다.

예로부터 희고 깨끗한 모습으로 청렴한 선비를 상징해왔던 백로는 작품 속에서 현실세계에 대한 이상을 투영한다. 또 복사꽃 가득한 낙원의 모습은 안견의 '동유도원도'를 보여주는 듯하다.

언뜻 보면 작품은 더없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무릉도원을 그린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리움과 쓸쓸함이 가득하다. 단색의 화면 안에 혼자 유유히 날고 있는 백로는 미성숙한

존재로서 외로움과 공허함을 많이 느끼는 현대인을 표현함과 동시에 작가 자신을 투영하고 있다.

작가는 "자연의 숭고함에 가슴 벅참은 물론 아름다운 생명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무릉도원 안의 정지된 시간 속에서 서로 어울려 울동하고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석중은 원광대 미술대학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번 '삶-그리움'은 작가의 22번째 개인전이다.

작가는 대학한국미술대전 특선 및 입선, 전라북도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익산지부장, 한국미술협회 서양화 2분과 이사, 신작전·전업작가회·중작과 회원 등으로 활동 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9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홍보대사 안재욱